



화순군, 농촌지도자회원 신기술 전달 선구자 역할

마늘·아로니아분과 명품화순 핵심인력 양성



화순군은 지난 5일 한국농촌지도자 화순군연합회원 56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및 아로니아 학습분과 학습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과 미

래농업, 친환경농자재 제조 및 활용에 대해 실시했다. 군은 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자회 활동을 지원하고 신기술 전달의 파수꾼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개발과 FTA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의 진단과 대응방향 교육을 통해 농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주었고,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경각심과 토양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친환경농자재의 자가 제조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선도농업인의 위상을 적당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역량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농촌지도자 화순군연합회는 14개회 6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의 핵심인력으로 명품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경제청, '가치공유 회의' 개최

저명인사 초청 특강 및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표 등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ND의원 박민수 원장이 '생체나이 10년 되돌리는 거꾸로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강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 무대리 행정개발본부장 서기원)은 5일 제24회 '가치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소속직원의 '광양만권 기업 (공장) 입주 절차'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전 직원이 이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기원 청장 직무대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강은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직원들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만큼 당초 계획 중 미진한 부분은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강에 앞서 소속 공무원 5명과 민간인 1명(순천양 주선도 팀장)은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표창장을 전수받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지역청년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시행

반려식물 청년기업 피스찰리와 청춘창고 창업주 만남

순천시는 5일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인 '청춘창고'에서 임원 청년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청춘창고는 순천시가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을 위해 80여년 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올해 2월 개점한 청년 창업공간이다. 식·음료 15개(26명), 공예 7개(9명) 등 총 22개(35명)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공예체험 등이 이뤄지는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이자 청년의 문화 교류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순천시는 반려식물 선도 청년 기업 최희민 피스찰리 대표와 홍주영 팀장을 초빙, 온라인 마케팅 시장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방법, 페이스

북·인스타 활용 유료 광고 방법, 미국·일본 이마존 입점 방법 등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진흥과 이재성 과장은 "청년 기업 피스찰리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 청년 창업주들에게 알려 주는 이번 교육은 지역 청년들의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에 적극 나서

발굴에서 보존정비까지 체계적인 추진·국비 확보 예산 노력

광양시가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정비·활용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 지역의 문화재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도내 최초로 봉강 명암 사직단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제단의 구성과 성격 파악 등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했으며, 조사결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직단의 복원과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구 광양군청과 백운사 등 19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총 4

억5천 만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341호인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옥에 대한 전시설을 정비하고 가옥을 개방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문화재 보존과 함께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나주시, 세계에이즈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전개

자발적 검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 중요성 강조



나주시는 세계 에이즈의 날인 지난 1일부터 한 주 동안을 '에이즈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조기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AIDS)'는 감염인과의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등에 의해 감

염되는 질병이다. 이 중 성 접촉에 의한 감염 빈도수가 가장 높아, 건진 방 주간'으로 정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조기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의학의 발달로 조기 발견 시, 치료만 잘 받는다면 건강한 삶이 유지가능한 만성질환이다. 때문에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시는 시 홈페이지에 관련 홍보물 게시뿐만 아니라, 나주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교 25개교, 민간의료기관 2개소 등 협력을 통한 다양한 에이즈 홍보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현재 나주시 보건소는 에이즈 감염 조기 예방을 위한 무료 임명검사 및 검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인 대상 의료기관 전문상담센터 연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나주시는 동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관내 정동시장을 찾아 '백 번의 검색보다는 한 번의 검사'라는 주제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 30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위한 가두캠페인, 에이즈 예방 콘돌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순천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탄력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회 통과

순천시는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에 대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최근 순천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은 조은프라자 앞 연향제1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2336㎡ 사유지에 2016년 특별교부세

10억원 포함 사업비 62억원(국비 31억원)을 투입해 지상4층 규모의 입체식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지난 3월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9개월만이다.

연향1지구 주차장 확장사업은 2016년 3월부터 주민 간담회와 토론회 등 수차례의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중요로 완충녹지 사선주차장 설치공사'와 '송진탑 이설부지 생활문화 공간 조성공사', '교통체계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근 도시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상가 침체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사업은 올 12월 건축실제 공모를 시작으로 2018년 8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음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